하나님의 모든 풋 가운데 서라

4 분기, 2024년 | 1주 | 1일 | 2는 2가

3월 31일 안식일 오후

가까울 일이

"이것 말씀 하셨더니 저희 그리스도 예수께 믿음이 있는 것을 인하여 저희 죄가 사함 받았나니 이는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조금 사랑하는 자는 조금 사함 받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때에 예수께서 그 여자를 향하여 이르시되 네 죄가 사함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때에 함께 앉은 자들이 스스로 말하기 시작하되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까지 사하는 자냐 하더라 예수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눅 7:47-50, 개역개정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도록 초대받았다. 그 은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 마음에 그의 율법을 기록하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 마음에 그의 영을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상속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보좌에 앉히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형제들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아들들과 딸들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기쁨의 대상들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신부로 만들어 주시는 은혜이다. 그 은혜는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

3월 27일 금요일

더 깊이 생각해 볼 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입니다. 자아를 굽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겸손을 입어 순수하고 평화로우며, 간청하기 쉽고 온유함과 선한 열매로 가득 찬 사랑을 지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혼은 지식과 참된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성품은 신실한 본보기이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대한 신뢰가 무한하셨다. 그분의 순종과 복종은 아무런 조건 없이 완전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러 오셨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모든 일에서 그분은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복종하셨다. 세상의 구주께서 입술로 이 말씀을 하셨다. “나는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요한복음 5:30] GW92 376.2

“그는 가난해졌고,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굶주렸고, 자주 목마르며, 수고로 인해 여러 번 지쳤으나, 머리를 뉘일 곳조차 없었습니다. 차갑고 습한 밤의 어둠이 그를 감쌌을 때, 땅이 종종 그의 침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삶이요, 놀라운 경험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불평 없이 기쁜 마음으로 궁핍과 고난을 견딜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분과 아무런 몫도 없을 것이다.—『교회를 위한 증언』 3:106.” GW92 376.3

“The warfare against self is the greatest battle that was ever fought. The yielding of self, surrendering all to the will of God, and being clothed with humility, possessing that love that is pure, peaceable, and easy to be entreated, full of gentleness and good fruits, is not an easy attainment.... The soul must submit to God before it can be renewed in knowledge and true holiness. The holy life and character of Christ is a faithful example. His confidence in his heavenly Father was unlimited. His obedience and submission were unreserved and perfect. He came not to be ministered unto, but to minister to others. He came not to do his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that sent him. In all things he submitted himself to Him that judgeth righteously. From the lips of the Saviour of the world were heard these words, “I can of mine own self do nothing.” [John 5:30.] GW92 376.2

“He became poor, and made himself of no reputation. He was hungry, and frequently thirsty, and many times weary in his labors; but he had not where to lay his head. When the cold, damp shades of night gathered about him, the earth was frequently his bed. Yet he blessed those who hated him. What a life! what an experience! Can we, the professed followers of Christ, cheerfully endure privation and suffering as did our Lord, without murmuring? Can we drink of the cup, and be baptized with the baptism? If so, we may share with him his glory in his heavenly kingdom. If not, we shall have no part with him.—Testimonies for the Church 3:106.” GW92 376.3

추가研究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WhatsApp: (+63)961-954-0737

contact@advancedsabbathschool.org